



유랑

해당화

소개글

지난 여름 12번째 시집을 출판하고 틈틈이 써 둔 시편들을 또 한 권의 블로그북 시집〈유랑〉으로 묶어 둔다. 도시살이 안정된 거처도 없이 유랑하는 시인이 보고 느낀 바를 시로 표현한 것들이다. 특히 대선 전후의 민중의 삶과 투쟁 그리고 진보당 이야기 또 시인이 관계된 생활 면면이 형상화돼 있다. 지금 유랑 8개월째인데 이번 전자책을 계기로 새롭게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올 연말까지 잘 버텨줘야 할텐데...그나마 긴급조치 위험 판결로 재심 배상 청구가 가능해 약간의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한다.

목차

1	시인의 거처를 옮기며	5
2	해당화 어딴냐고 묻지 마시라	7
3	유랑민으로 하루를 살아도	9
4	그날밤 창동아고라 광장에서	10
5	불가능한 꿈을 품고 살아	12
6	내 마음의 새벽별에게	14
7	한가윗날 자신을 돌아보며	16
8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18
9	창동에 최루탄이 터지던 그날	21
10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오래	24
11	같이 가야지 내 마음같은 후보	26
12	마산만 그 쓸쓸함에 대하여	28
13	함께 하는 오늘이 든든하다	30
14	기나긴 해고노동자의 투쟁길	32
15	검은 고양이와 맺은 인연	35
16	지금은 진보대통령이 필요해	37
17	시인의 흔적을 시로 남기며	39
18	내 마음같은 대통령 후보에게	41
19	당당한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43
20	제비산에 깃든 추억 있다면	45
21	18대 대선 절망은 끝나야 한다	47
22	창동에서 마산역까지 새벽길에서	49
23	참을 수 없는 슬픔 앞에서	51
24	25시에 부르는 창동블루스	53
25	새해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55

26	슬픈 약속 뮤직비디오를 보며	58
27	이 땅에 함께 살기 위하여	60
28	흰눈 속에 핀 홍매화처럼	62
29	세월은 가도 그날은 영원하다	64
30	겨울밤 호젓이 길을 걸으며	66
31	잊지 못할 그 푸른 바다여	68
32	정전 60주년 상상하기 싫은	70
33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72
34	입춘 지나 비오는 밤에	74
35	함께 가는 고향길이 그림다	76
36	핵핵거리는 정국에 내 심정은	78
37	누가 뭐래도 새봄은 온다	80
38	마산은 가고파에 침을 뱉아라	82
39	보름달이 뜨면 생각나는 것	84
40	갈맷길에 찍은 내 발자욱	87
41	새벽길에서 시작하는 하루	89
42	부끄럽다 서민도지사 홍준표	91
43	행여 마산항에 오시려거든	94
44	도화선에 불이 당겨졌건만	96
45	진달래 꽃눈에 이슬은 맺혀	98
46	우린 얼마나 멀리 와 있나	100
47	내 마음의 진달래는 다시 피고	102



시인의 거처를 옮기며

떠날 준비를 한다
한 동네에서
너무 오래
지냈다 한 10년
몇 권 시집을
출간한 게
내 할 일이었다
다시 12번째 시집이

오늘 나온다
창동으로
거처를 옮기며
옥탑방같은
작업실을 쓰련다
봉화산 자락
진한 추억일랑
먼 훗날
좋은 세상이 오면
웃으며 찾자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겠지
두만강을 넘어가던
고난의 시절
아리랑이
절로 떠오르는
유랑길같이
시인은 간다



해당화 어딴냐고 묻지 마시라

도심 속 새 거처에서
첫 밤을 보내다
장맛비 그친 오늘
동녘하늘에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다
유랑이다
적어도 시인에게는
공인이다

더불어 꿈꾸며
사람사는 세상을
찾아라 한다
몸 누일 곳이야
내 발길 닿는 곳이면
집인 것을
무학산이 보이고
마산 앞바다가
손짓하는 여기에서
창동 오동동
시대가 열리다
먼 훗날
추억이 될 것이다



유랑민으로 하루를 살아도

창동에 동지를 틀고
유랑 한 달 남짓
시인은 자유롭다
프리랜서 업무
이제 막 끝나가고
신문 잡지 책
세심히 읽으며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큰비가 잦은 만큼
요즘 세상도
불안정하지만
첫 마음이 소중하다
더불어삶을 찾는
민중의 열망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한
내일에 살고 싶다
같은 날 새롭고
유랑은 계속된다



그날밤 창동아고라 광장에서

창동예술촌에 달이 뜨면
고운 노래 들려오네
추억의 골목길 걸으며
옛 생각에 젖어
발걸음 멈추게 하는
마산의 혼불이여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리라고

소리쳐 부르던
지난 날 내 젊음도
오롯이 살아 숨쉬네
예술인들 상인들
힘을 모아 일군
이곳에 잠시 들러
새 힘을 충전하구나
문화가 춤추는
아고라광장에서
박수치며 장단 맞추고
한데 어울려 노는
열린음악회 멋져라
보고픈 얼굴처럼
잊지 못할
창동예술촌의 밤이여
노래하라 춤추어라



1%에 맞선 점령하라!
99%



1 % 의 탐 욕 에 맞 선 9 9 % 행 동 준 비 팀

10월 15일(토) 오후 6시 시청광장

우 리 가 9 9 % 다 !

분 노 한 9 9 % 가 광 장 을 점 령 하 라 !

불가능한 꿈을 품고 살아

호우 그치고 맑은 날
시외주차장에서
신문을 사서 읽는다

커피 한잔을 마시며
시사잡지 보고
글쓰기에 공감하네

대선정국 비껴선 내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사람이 문제다

길냥이도 떠돌이개도
다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그리워라

고장난 자본의 세상은
더 이상 가망없다
이제 혁명이 필요해



내 마음의 새벽별에게

태풍 지나간 다음날
새벽별이 고와라
내 가슴에 새긴
절절한 염원인 양
오래 빛나리니
갈 길은 멀고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더불어살 이루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서리라
주저앉지도
돌아서지도 말고
오직 한길로
참세상을
목놓아 부르라



한가윗날 자신을 돌아보며

창동에 온 지 석 달째다
옥탑방같은 5층에
잠시 머물며 시 쓰고

창동예술촌 이모저모
지역사회 행사를
카메라에 담아
블로그 포스팅한다

옛 동네 고양이들에게
먹이도 갖다 주며
왔다갔다 보낸 날들

프리랜서 원고료가
시집만큼 도움돼
해묵은 통장을 살려
한숨 돌리게 됐다

불종거리 코아 위로
둥실 뜬 보름달
더불어삶을 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억만겁을 빚냈을 저 달과 별
오늘 내 창 밖에 떴네
못 잊을 그리운 얼굴처럼
또렷이 살아오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던
남북정상 약속이여

10.4선언 5주년을 맞으며
"통일대통령이
경제 복지대통령이다"
당당하게 말하는
오종렬 의장 폐북 글이
남북산야를 울려라

가로막고 잡아 가두어도
언젠가 오고야 말
평화 번영의 한반도
이루지 못할 꿈은
정녕 아닐진대
통일의 길 달려가야지

박근혜는 아예 빼고
이정희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들 중
7천만 겨레의 비원을
과연 누가
풀어 줄 수 있을까

지금도 쇠창살에 갇혀
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잠 못 드는
시대의 양심들이여
차마 부끄러워
시 한 편 바치노라

馬山·昌原에 衛戍令

學生등 소요 사태로 오늘 正午 기해 발동 구경군도示威群衆으로 간주 連行 경고

【馬山 20日電】馬山·昌原方面에서 學生等의 暴動이 發生한 것을 以て 20日 正午 起 馬山·昌原方面에 衛戍令을 發令한 바 있다.

馬山方面에서 學生等의 暴動이 發生한 것을 以て 20日 正午 起 馬山·昌原方面에 衛戍令을 發令한 바 있다. 此令은 馬山·昌原方面의 治安을 維持하고 暴動의 發生을 防止하기 爲한 것이다.

軍公共 건물 警備 돌입

馬山方面에서 學生等의 暴動이 發生한 것을 以て 20日 正午 起 馬山·昌原方面에 衛戍令을 發令한 바 있다. 此令은 馬山·昌原方面의 治安을 維持하고 暴動의 發生을 防止하기 爲한 것이다.

暴動 가까운 放火· 파괴 行爲

現場에 私製銃器

“背後에 組織세력 있는 듯”

馬山方面에서 學生等의 暴動이 發生한 것을 以て 20日 正午 起 馬山·昌原方面에 衛戍令을 發令한 바 있다. 此令은 馬山·昌原方面의 治安을 維持하고 暴動의 發生을 防止하기 爲한 것이다.

馬山方面에서 學生等의 暴動이 發生한 것을 以て 20日 正午 起 馬山·昌原方面에 衛戍令을 發令한 바 있다. 此令은 馬山·昌原方面의 治安을 維持하고 暴動의 發生을 防止하기 爲한 것이다.

慶北大 政學部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韓國神學大 春邑

그날 그 거리에 서면
지금도 내 마음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오라고
노래하고 싶네

유신철폐를 외치며
창동사거리 밤거리를
가득 메웠던 이들
시위대열 속으로
뛰어들고 싶네

세월은 가도
다시 10.18이 돌아오면
추억 속에 살아
부마항쟁을
떠올리게 한다네

술병을 짱돌을 들고
군사독재와
격렬히 맞섰던
그때 그 자리
내 눈에 선하네

민주헌이 깃든
마산 창동을
오가는 사람들이여
그날 젊은 그들을
잊지 말아라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오래

오늘은 가을비가 내렸다
함께 맞는 비는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며
갈 길을 갈 때
어울리는 말이다
우리시대의 아픔인 양
내 발에 밟히는
은행잎 하나 둘 셋
대북빼라소동

비정규직 철폐농성
밀양송전탑 반대
전국 곳곳이
아슬아슬하게 내딛는
지뢰밭 투성이다
시외주차장에서
육호광장까지
가을비 속을 걸으며
12월 19일 그날
민중의 삶을 일으키고
평화를 지켜 줄
후보가 당선되기를
내심 바랬다
바람부는 길 위에 서서
다시 부르고 싶은
그때 그 노래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같이 가야지 내 마음같은 후보

국화주 마시고 누웠다가
얼핏 눈을 뜨니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진다
주말 행사는 파이다
한밤중에 컴 작업 하며
블로그 페이스북에
사진 글을 올리면
시인의 하루가 간다
12월 대선에서
한몫해야지요 라고
댓글을 다는 고마운 폐친
오프라인은 어려워도
필이 서로 통하니 좋다

단풍이 지기 전에
산엘 올라야 할텐데
창동 오동동에서
멤도는 나날이 많다
두어 잔 술에 취해
쓰러지는 몸이
때로 한심스럽다
빗 속에서도
비정규직 철폐 집회는
열렸을 터이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대통령선거 행보는
민중의 삶을 지키고
겨레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하여
쉽없이 달려갔으련만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뉴스만 판치는
대선정국에 덤덤한
유량이 계속된다
가을비가 그친 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되물어야 할 때다



마산만 그 쓸쓸함에 대하여

가고파 국화축제에 가서
고운 꽃들도 보고
전시장 구경 잘했네
무학산 마산만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며
문득 국화꽃 너머
바다가 그리워
돌섬 마창대교에다

촉점을 맞추었네
저 70년대 개발독재
그때로부터 앓기 시작한
내 고향 남쪽바다
매립되고 오염돼
못 생명이 죽어갔던
그날의 아픔을
무엇으로 달래랴
마산항 제1부두에서
서성거리는 내 마음은
국화꽃 한 송이
띄워 보내고 싶었네
가을 국화는 다시
피어났건만
뱃고동소리 울리던
추억의 바다는
파도치지 않았네



함께 하는 오늘이 든든하다

오늘이 입동이라지
밤공기가 차다
지리산에도
첫눈이 내렸다지
한 폐친 생각에
한밤중 일어나 앓다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요즘 언론에 뜨는
학비노조이다
80여개 직종에서
땀흘리는 교육 주체들

그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맞다
서울시청 광장에
쟁쟁하게 올려퍼졌던
"호봉제 쟁취!
교육감 직접고용!"
정당한 요구가
내 가슴을 친다
외롭고 공허한 외침이
결코 아니다
SNS에 제때 올라온
정규직화 대행진
촛불 단식농성
외면할 일이 아니다
함께 모이는 광장으로
너도 달려가고
나도 달려가야지



기나긴 해고노동자의 투쟁길

전태일 열사 가신 지
어언 42주기!
노동자의 삶을 돌아본다
부산 서면 거리에서
선전전 펼치던
풍산마이크로텍 조합원들
가을 겨울 봄 여름
지나고 1년이 됐어도
악덕자본에 맞서
파업투쟁 중이었다

찬바람 맞으며
우뚝 서 들려주던
지나온 사연들 아꼈다
평균 18년 근무
휴가중 매각
부당해고 단행
교섭때 회사를 살리고자
상여금도 양보했던
생산의 주역들이
쌍용차처럼
한진 영도조선소처럼
악랄한 풍산자본의
"불법 정리해고
한탕주의 투기경영
이제 그만!"
분노의 목소리로
생존권 투쟁에
떨쳐 나섰다
MB정권 노동자 죽이기
어디 이뿐인가
수많은 비정규직들
벼랑 끝에 섰다
한없이 울부짖던 나날들
그 얼마였겠는가
풍산을 위해서라면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노동자의 오늘!
바로 정리해고였다
술하게 외친
"함께 살자!"
"해고는 살인이다!"
이 말들이 쟁쟁하였다
아직도 우리는
열사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당해고가 사라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한배의 운명이다



검은 고양이와 맺은 인연

검은 고양이 가족들
시인의 벗 됐네
요즘 떨어져 지내건만
오늘도 먹이 주러
옛 동네 들르는
내 심사를 뉘 알랴
어둠 속 반짝거리는

야옹이의 저 눈빛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듯
무척 기다렸던
표정들이야
그냥 버려둬야 하는데
어미를 쫓 빼닮은
검은 고양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품이 대견해
내칠 수 없이 된
속사정 탓이지
그새 정들었는가
갑자기 또 죽지 말고
뛰놀며 살거라



지금은 진보대통령이 필요해

찬바람에 손시린 거리
노란 은행잎들
우수수 훔날리더니
저 나무 위 까치집에도
겨울이 닥쳤구나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눈길을 주다가
문득 서민의 삶이
저처럼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더라

좀 있으면 나아질까
희망도 그만
모두 힘들다고 말하지
부정부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

내 한 표 잘못 찍어
MB에 속았던
5년간 더 죽어난 이들
헤아릴 수가 없네
악몽을 꾸 거야

불황의 그늘이 아냐
까치만도 못한
대통령을 뽑은 탓이지
반가운 소식 하나
물고 온 적 있던가

까치집을 바라보다
99%의 삶을
오손도손 땀겨 줄
그런 대통령이 그림데
이정희 후보같은



시인의 흔적을 시로 남기며

허리에 파스 한 장
붙이고서 눕다
배낭이 무거운 탓인가
도심 속 유랑 중
빌딩에서 모텔로
시인 거처를 옮기고
침대에 잠시 쉬니
어깨 허리 모두
아픈갑다
깊은 산에서 비박하듯
침낭 하나로
겨울을 버텼었는데

이제 조금 낮다
지금도 고공철타에서
국회 담벼락에서
농성하는 이들
생각하면
맘이 편치 않다
당분간 시집 보급
원고 집필로
겨울나기를 해야지
찬바람 가르며
이른 아침부터 뛰는
정치실천단
내 카메라에 담아
선거때 뭔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할 판이건만
해당화 시인은
몸 누일 방 한칸
겨우 구하고
유량은 계속된다



내 마음같은 대통령 후보에게

유월항쟁의 격전지였던
육호광장에서
따뜻하게 말 건네는
이정희 후보에게
건다, 나의 꿈을
나의 희망을
99%의 내일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선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그를 만났다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연방"
요구를 내걸고
망가지고 갈라진
우리나라를
철타 끝에 내몰린
민중의 삶을
꼭 살리겠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당당하게
12월 19일!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자는
이정희 후보에게
건다, 나의 꿈을
나의 희망을



당당한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위기는 서민의 위기다
그 말 한마디에
대선 해법이 담겼네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MB 5년을 심판할
이정희 후보
대선 토론을 보며
노동자 농민 서민인

99% 국민들은
진정한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지
곰곰이 따져보았을까
비정규직 노동자
적자농사 짓는 농민
허리 휘청한 서민
우리들 살림을
속속들이 헤아리며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눈
이정희 후보의 당당함이며
삼성재벌도 새누리당도
다 한통속이란 것을
속시원히 밝혔네
최저임금법이
기초농산물 수매제가
왜 필요한가를
날날이 밝혀 주었네
또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맞데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누가 거짓 공약을
지껄였는가를
알 만한 사람은 알지
흑한의 겨울공화국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봄날의 약속이
다시 내게 희망이다



제비산에 깃든 추억 있다면

저물무렵 육호광장에서
제비산으로 올랐다가
눈덮인 무학산을
목에 건 카메라에 담으며
옛 추억에 젖었다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살림의 흔적은

꼬불꼬불한 산동네 골목길
낮은 슬레이트집들에
한처럼 서렸구나

민중의 문학을 꿈꾸며
북마산 화산다리로 해서
산호공원 들르고
때로 이곳까지
걷기도 많이 하였지

젊은 날은 어느새 가고
도시를 유랑하며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
사진 찍고 글 쓰는
시인이 되었네

마산에 첫눈이
함박눈으로 쏟아지던 날
셀레던 마음처럼
함께 살자! 코리아연방
그날은 꼭 오리라



18대 대선 절망은 끝나야 한다

앗, 출구조사가 엇갈린다
난 방송 3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최종 투표율 75.8%
박빙의 승부수다
MB 언론악법 날치기가
방송인 해직사태가
눈에 어른거려
TV가 볼 게 못되더라
그마나 인터넷언론사가
진실을 알려내지
애초부터 거짓 공약
불법 부정선거
저지른 새누리당
또 된다면

이건 죽음이다
절망의 겨울공화국이
다시 돌아와
더 이상 삶은 없다
페이스북 속보에
가슴이 철렁
무너지던 순간
끝까지 희망을 말하자
제발 이겨라
이정희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자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승리를 기약한다



창동에서 마산역까지 새벽길에서

동짓날 팔죽 한 그릇 먹을까
대선 액뎌 하는 셈치고
마음도 심란한 새벽길
이제 TV를 켜면
땡뉴스가 시작됐지만
5공때 전두환처럼
박근혜 찬양 일색이구나

철갑 농성중인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는가 이 겨울
동지팔죽 나눠 먹으며
웃음꽃 피울 그날은
5년 후나 오려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철창 속 양심수들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나
박정희 딸 말대로
지하경제 활성화시키면
서민들 살 길 열릴까
세상은 더 캄캄해질 뿐
고통으로 몸부림칠
이 땅의 민중들이
눈 앞에 섰는구나
시인조차 적들과 맞받아쳐
나갈 수밖에 없어라



참을 수 없는 슬픔 앞에서

죽지 마라 다시는
눈 속에 핀
산죽을 보아라
하 많은 아픔을
품은 채
찢긴 산하를
망쪼든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반 세기가 넘도록
청청히
버터 켜거늘
악랄한 자본이
유신 악몽이

제 아무리
목줄을 조여 올지라도
겨울 가면
새봄이 오듯
너와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날은
산 자들의 몫이다
죽지 마라
겨울공화국을
함께 이기자



25시에 부르는 창동블루스

앗 폭설이다 눈보라까지
버스가 끊겼다
마치 계엄령이 내린 듯
불종거리도 시민도
통행이 차단됐다
다시 유신공화국이
돌아온 것처럼
일순간 침묵 속에 빠져든

내 고장 마산
사무친 분노처럼
아우성처럼
눈발이 휘몰아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500만 유권자가
박근혜를 거부했다니
절망은 이르다
오래 가지 못할
정권이란 거 안다
"함께 살자!"
"통일코리아!"
우리시대의 화두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저 폭설을 헤치며
날개 꺾인 파랑새가
퍼득퍼득
날고 싶은 날이다



새해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저 백두산 천지 해돋이가
텅 빈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구나
나무 한 그루
돌맹이 하나에도
7천만 겨레의 염원이
깃들어 있을 영산
분단산하의 첫날에
우러러 보노라
6.15와 10.4선언

남과 북의 약속이
야속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련만
거꾸로 도는 세상
다시 꿈을 비는
계사년 새해
한 가지 소망이란
전쟁 아닌 평화만이
통일조국만이
오직 살 길이란 것
뺨 뚫린 가슴에
새겨 보는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누리를 비추는
햇살을 품으며
나의 길을 가리라



슬픈 약속 뮤직비디오를 보며

랩 음악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젊음들
5.18 그날의 못 다한
슬픈 약속을
세월이 간들 어찌 잊으랴
네가 쓰러져 간
그 자리에 피어난
오월꽃아
망월묘역에 선 것처럼
산 자들의 가슴은
한이 사무치네
옛된 고등학생까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웠던
분노의 거리가

내 눈에 선하구나
시대의 죽음을 넘었던
뮤직비디오 한 편
사람들아
사랑해 주려마
33년 전 그날
지울 수 없는 기억 앞에서
우리 피로써 이룬
대동세상을
함께 찾아가리라



이 땅에 함께 살기 위하여

바리케이트가 생각난다
총칼을 들고 맞선
레미제라블 사람들
목숨을 걸고
혁명에 나선 그들은
서민들이었다
지금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이었다
지금까지 술한 항쟁이
다 그러하였다
한진 쌍용차 현대차
싸움은 계속된다
신자유주의 한미FTA가
삶을 옥죄다

악랄한 자본이
가진 자의 권력이
투쟁을 부른다
용산참사도
밀양 송전탑도
현재진행형이다
더 늦기 전에
절망은 끝나야 한다



흰눈 속에 핀 홍매화처럼

마땅한 거처도 없이
떠돈 유랑 6개월
창동 시내에서
행사장엘 두루 다니며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며
보낸 시간이 꽤 됐다
시집이 좀 남았고

이제 딴 곳으로
떠나야 할 때
빈 속에 마신 술에
비틀거리는 도시
시인은 아프다
어데 호젓한 곳
발품을 팔아
찾아나서야 할꺼나
빌딩5층 모텔3층
도심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이제 늦겨울
새봄을 부르니
바꿔봐야지
눈 속에 핀 꽃처럼
시련을 뚫고
오늘보다 내일에
살아라고 한다



세월은 가도 그날은 영원하다

겨울비를 맞으며 걷다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
마산 오동동 아케이트
자유시장 흔적을
사진 한컷에 담았네

수출자유지역 87년

6월 민주항쟁

7,8월 노동자대투쟁 그날

여기서 술 한잔

데모 뒷풀이

안해 본 사람 없다지

복개천인 그곳을 뜯고

지금 생태하천 공사중인

격동기의 현장에

비는 내리고

그날의 술한 사연은

내 가슴에 있네

부마항쟁때부터 쪽

지켜보았을 역사

행여 이곳을 지나거들랑

떠올려 주게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던

그 목소리 눈빛을



겨울밤 호젓이 길을 걸으며

너는 모르지? 내가 왜
달을 보는가를
모두가 잠든 시각에
밤길을 걷는가를
뉘 있어 알랴
잠 못 이루는 저 달
꼭 내 마음 같아
목에 건 카메라로

살포시 담아라
지금 한뼘잠 뒤척이는
노동자 노숙인
남 같지 않아
새벽이 동틀 때까지
밤새 곱씹어 보는
평등한 세상을
함께 찾아가야지
앞으로 5년!
더 살기 힘들겠지만
희망 하나 품고
내 갈 길을 가야지



잊지 못할 그 푸른 바다여

무학산 학봉에 얹드려
새해 시산제를
여럿이 함께 올리고
고향길처럼
내 가슴에 품어보는
마산만이며
저 멀리 섬들이여
안녕한가

선창가 추억은
기억 속에 또렷하건만
옛 자취는
찾기가 어렵구나
또 매립 중인
항구도시 바다
탐욕 탓에
고층아파트 숲들이
눈 앞을 막고
가고파의 바다도
신음하는구나
산신령님은
용왕님은
속이 까맣게 뒹겨늘
어리석은 인간들
반성할 줄
전혀 모르는가
학봉에 부는 바람소리
오늘따라
쓸쓸해 보이더라



정전 60주년 상상하기 싫은

봄날은 가까이 왔건만
내 나라 강산은
철조망을 앞에 두고
핵폭풍 전야인가

대결은 남북을 넘어
미국 일본까지
미사일은 날으지

해고노동자가
빈곤층이
잇따라 생목숨을 끊는
지옥같은 세상에

전쟁은 희망인가
아님 또다른
절망일 것인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한 이 땅
북미대전은
아예 관심밖이지

녹슨 철조망에 봄은
찾아왔건만
평화의 길은 멀다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한때는 부산의 자랑이었겠지
한진 영도조선소 공장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의
절망, 죽음, 분노만
항구도시 그곳에 남았는가
먹튀, 해고, 손배소
자본의 횡포는
오직 투쟁을 부르지

희망버스 소금꽃나무
바로 엇그제인데
오늘은 최강서 열사를
살려내라고 외치는구나
노조탄압 끝없고
시민 바램도 저버린
한진의 꿈수는
고작 부동산 투기인가
경찰까지 끌고와
방어벽 쌓고
무차별 폭력 일삼는
지옥으로 변한
영도조선소 일대
삶과 죽음의 전쟁터라네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곳 없어
투쟁길에 나선 그들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찾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목놓아 외치는 것이거늘
누가 열사를
칭찬을 바쳐 일한
한진노동자를
욕되게 한단 말인가
설 명절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최강서 동지에게
올리고 싶다는 열망마저
짓밟는단 말인가
부산시민이여
노동형제들이여
영도조선소를 지켜내라
노동자들을 살려라



입춘 지나 비오는 밤에

흠뻑 떠나고
싶건만
망설이는 마산역

아직도 채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는가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면 되거늘

끊지 못할
무슨 인연이
남았길래

호젓이 떠날
맘 채비가
안됐단 말이나

떠돌다가
어느 길에서
잠이 든들

이 산하의
한줌 흙이요
넋이니

산이든 강이든
벗을 삼아
유랑할꺼나



함께 가는 고향길이 그림다

설날이 가까워오면
내 마음은
설레기는 커녕 아프다
하늘로 간 노동자
흑한 속 농성장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최강서 열사
생각들이 나서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이
왠지 낯설다
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심정은
차마 말 못하지
유난히 추운
올 겨울을 넘기며
다시 올
새봄을 기다려
차가운 설 명절을
맞고 싶다



핵핵거리는 정국에 내 심정은

핵보다 더 무서운것은
평화의 의지이다
대북제재가 미일이
건들면 맞받아 치겠다는
북의 결단을
허투로 듣지 말라

한반도는 전쟁 전야
이 땅에 배치된
핵미사일 핵지뢰 핵배낭
셀 수 없이 많겠지
지금도 동해 어디쯤
핵잠수함 있겠지

북의 핵실험이 던지는
경고가 심상찮다
온 세계가 떠다
북의 비밀 신무기가
소형핵무기가
만약 날아든다면

남북한 뉴욕 동경이
다 잣더미겠지
그러면 얻는 것이
과연 무어라
핵전쟁보다 더 절실한
평화만이 답이다



누가 뭐래도 새봄은 온다

봄기운이 도는 길에서
집집 담벼락에 핀
자그만 꽃눈들
유독 춥고 헛헛했던
올겨울을 이기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구나
얇은 침낭 하나

내 몸 덮기에 충분한
낮은 방을 나오다
마주친 유랑시인에게
어김없이 새봄을
알리는 전령들이여
철탑 위에도
열사의 얼굴 위에도
천막농성장에도
춧불처럼
활활 타오르거라
민중과 함께
끈질기게 살아
꼭 희망을 찾아오는
그날을 위하여
새잎이여 피어나거라
내 마음 속
그리운 연인처럼
우리 다시 만나자



마산은 가고파에 침을 뱉아라

대학시절 금정산에 올라
노산 이은상의
가고파를 함께 불렀지
그 이후에도 즐겨
듣곤 하였던
이 곡이 통탄스럽네
마산역 광장에
노산 시비가 서자

축하는 커녕
근조 검은 천이
분노를 말해주는구나
3.15 의거를
무모한 흥분이라
모독하였됐고
독재정권에 아부한
그가 어찌
내 고향 마산의
자랑이란 말인가
그 파란 물
눈에 어리던 바다도
가포 해수욕장도
찾아볼 길 없다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이은상이거늘
누가 왜 다시
가고파를 부르나
당장 철거하는 게 맞다
이제 더 이상
가고파 노래가
노산 이은상 시비가
민주성지 마산을
욕되게 하지 말라



보름달이 뜨면 생각나는 것

산행 채비를 갖추고
새벽길에 서서
바라본 보름달아
난 무엇을
빌고 이룰까
오곡밥도 나물도 없이
맞는 정월 대보름
동네마다
달집을 태우며
액땀하고 희망을
실어보련만
유신의 악몽 떠올라
발걸음은 무겁고
뒷산에 올라
두 손 모아 조국통일을
기원하였던
기억이 새롭네
오늘 최강서 열사가
떠나가는 날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저 달에게
소원 한 가지
간절히 빌고 싶네
박근혜에게는 없는
노동의 삶이
사람사는 세상을
끝내 찾게 되지
내 가슴에 뜬
보름달아
만인을 고루 비추라



갈맷길에 찍은 내 발자욱

해변의 추억이야
누구에게나
아련히 남아 있으리
요즘 갈맷길이
인기라지
붉은 동백꽃
피고지는
내 고향의 품같은

남도의 바다
쭉쭉 파도여 치는가
그 섬에 갇든
숨은 사연인들
하 많으랴
평화로운 어촌마을에
덮친 전란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니
지금은 힐링이
필요한 여행객들이
등산객들이
즐거 찾는 곳
옛그제 가덕도 연대봉
산행길에
호젓이 걸어 본
갈맷길이어
언제 다시 가리라



새벽길에서 시작하는 하루

목이 말라 잠이 깬
새벽녘 달은
반쪽이고 꽃샘추위가
얼굴을 스친다

옛그제 3.1절은
일제 만행도
한반도 전쟁위기도

하나 풀린 게 없다

3기 진보당 출범식이
민중의 꿈을 이룰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나에게는

산길을 갈 때처럼
자유로운 시간
지나온 어제의 삶을
다시 돌아본다



부끄럽다 서민도지사 홍준표

돈보다 생명을
몸벽보가
해고는 살인이다
플랑카드가
폐업 철회
피켓이
나를 울리고
나를 분노케 한다

경칩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보건의료 동지들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까지

하나로 뭉친

성난 목소리가

경남도의회 광장에

쨍쨍 울려퍼졌다

감히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저 홍준표

불통도지사가

370명 생존권도

도의회 절차도

도민여론 수렴도

아예 무시한

폐업을

결정하였다니

미친 짓이다

봄 햇살 속

터져나온 외침들

몸싸움

파업가가

서러운 눈물이

팍팍한

내 가슴을

때린다

쌍용차 현대차

재능교육

밀양 송전탑

강원도 골프장

제주 강정

이제

진주의료원인가

MB에 이어

박근혜 시대에

마주치는

경남도 서민도지사
첫 풍경이다



행여 마산항에 오시려거든

돌섬 하면 마산이지
오래간만에
바람쐬러 들른
그 섬은 고요했어
아픈 바다야
지금도 앓는 중
수출공단 들어서고
해양신도시 매립으로

불품없이 됐다는
탄식이 나오지
옛 가포해수욕장을
추억해 보며
섬을 한바퀴 두르고
배타고 내린
선착장 부둣가를
걷다가 마주친
4월혁명 발원지
김주열 열사 주검이
떠올랐던 그곳
내 고향 마산항은
정작 볼 것이
검푸른 파도보다
갈매기떼보다
민주주의 혼이 스민
바로 여기였네
무학산이 지켜주고
민주시민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그날을 새기며
얘기 나눴으면 하지
꽃 한 송이
술 한 잔
바치고 절 올리는
내 마음 속
민주성지였네



도화선에 불이 당겨졌건만

기어코 전쟁이구나
60년 된
정전협정도 백지화되고
이제 한반도는
전쟁모드로
돌입하고 말았네
언제 어디서
포성이 울릴지
누가 먼저
핵단추를 누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이 시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출퇴근하고
술 마시고

사랑을 나누다
어느 순간
해참화를 겪는다면
돌이킬 수 없지
북미 남북한
모두가
전면전을 치르면
다 불바다지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되든
핵전쟁 그 이후를
어찌 감당할까
키 리졸브가
독수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금
어디로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네



진달래 꽃눈에 이슬은 맺혀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봄비가 내렸지
농사꾼에게
반가운 단비라지
도시에서 사노라고
잊고 지내는
흙살림 풍경들
내 언제고
돌아가고픈 그곳
농민회 회장도

거름 내랴
가족과 함께
땀흘리는
노동의 수고로움이
떠오르는 시간
후두둑 빗소리가
나를 깨우지
사무쳐 맺힌 눈물처럼
저 꽃눈마다 이슬
영롱한 산천에
봄은 왔건만
내 가슴은
쓰라리고 어둑하지
봄같지 않은 봄
갈아엮어야지
돌개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던
새벽길에서
떨우는 속마음이야
뉘 있어 알랴

憲法반대·否定·비방등 일체禁止

反維新挑戰 國論分裂을 막아

朴대통령 國情演說

非常軍法會議 設치

令狀없이 拘束·15년이 하懲
放送報道로 알리는 일도 못해
宣布 이전 行為는 不問에 붙여

大統領 緊急措置 宣

어제 下午 5시 부터 發効
流言蜚語 行爲

京鄉新聞

창간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대한민국 100년
대한민국 100년
대한민국 100년

우린 얼마나 멀리 와 있나

나는 70년대 유신세대였지
부산대 다닐 적에
동래사거리까지 진출한
유신반대 데모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위수령이 내리자
휴교조치가 떨어졌지
그후 통기타 청바지
포크송에 빠져든
학창시절을 끝나치고
교사 재직 중
군대엘 갔지
그때 문학청년으로
창작과 비평

씨알의 소리를
애독하며 시를 쓰다가
덜컥 잡혀간 거지
통일시 1편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2년
남한산성 구경도
다하다니
김재규 중정부장때
특사로 나왔지만
불온 딱지가
그대로 남아서
80년 광주항쟁 이후
현실불만교사로 찍혀서
해직이 되었지
그러고 보면
박정희 전두환은
내겐 원수지
세월은 흘러 며칠 전에야
긴급조치 위헌
판결이 있었다지
79년 1월 포승줄에
묶여갔으니
꼭 34년 됐지
재심 명예회복 배상
단어가 어른거려
옛 생각이
절로 떠오르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악몽같은 세상인데
정작 바꿔야 할
독재권력은 그대로지
그러니 묻자
우린 얼마나 멀리 와 있나
유신시대로부터



내 마음의 진달래는 다시 피고

우리 부모 피난처였다는
거제도 망산에서
산행하다 만난
바위 위에 핀 진달래
한려수도 먼 바다
크고 작은 섬들을 바라보며
가슴에 맺힌

그리움을 태우는가
꽃피는 봄날에
다시 부르는 이름이여
새날의 약속이여
갖은 풍상 다 겪어도
언제고 찾아올
사람사는 세상을 기다려
끈질기게 피었는가
수천수만의 진달래로
끝내 살아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꿀 열망처럼
오늘도 타오르는가
어디 망산뿐이라
온 산천이
한결같은 마음인 것을
역사는 알아주리라

유랑

블로그 자신을 돌아보라 <http://blog.daum.net/youpoet>

저자 해당화

발행일 2013.03.27 04:21:08

 블로그